

# 五臟 九竅와 易理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김 중 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교실

## 內容提要(Abstract)

人體內的五臟九竅,在位置上或者在數理上,表面上看無秩序,但各個照着陰陽的調和規律配置,因此可以說符合於易理. 五臟中之脾土以外, 其他四臟, 以理論之, 肝和心相應於春夏氣象, 在臟器的數各有其一, 比肺腎居位於內面, 肺和腎相應於秋冬氣象, 在臟器的數各有其二, 比肝心居位於外面, 所以符合於陽為奇數陰為偶數的易理, 陽在內, 其氣向外, 陰在外, 其氣向內, 終于符合於天地陰陽相交之妙理.

九竅以易理論之, 上部的眼鼻耳各有雙竅, 下部的口前陰後陰各有單竅, 以上下竅相合論之, 卦象為地天泰, 故九竅裏中存在天地兩卦, 但鼻則比較複雜. 因為鼻在表面上看為雙竅, 但在內面上看, 外雙竅却內通為單竅, 因此, 上部的三竅為坎水卦, 反面前陰在外面上看為單竅, 但內面上看, 外單竅在內部却分開為尿竅與精竅, 因此, 下部三竅為離火卦, 所以可以如下說: 九竅以鼻和前陰內竅看, 為水火既濟卦. 故九竅裏中也存在天地中樞的伏羲先天八卦圖以及水火中樞的文王後天八卦圖, 總而言之, 人體內存在天地水火四卦, 正符合天地自然造化之妙理, 故古聖人云天人相應之說, 可見非空言虛說. 此文章研究闡明了如上的內容.

## 1. 緒 論

《周易》은 變化의 道理를 말한 책이다. 道理는 《易繫辭傳》에서 “一陰一陽之謂道”<sup>1)</sup>라고 하였으니 陰陽이 變化하는 도리를 말한 것이다. 韓醫學의 근본사상은 天人相應觀, 陰陽五行學說, 整體觀, 恒動觀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陰陽五行學說이 한의학 이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易과 醫는 對象과 규모에 있어서 大小廣狹의 차이가 있지만 兩者가 모두 음양학설을 기본 이론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唐代의 名醫 孫思邈은 “大醫가 되고자하면 《素問》, 《甲乙黃帝針經明堂疏註》…《本草藥對》, 張仲景… 등을 반드시 암송하고 아울러 《周易》의 음양 변화 원리에

精熟해야 비로소 大醫가 된다고 할 수 있다”<sup>2)</sup>라고 하여 《周易》을 醫家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서적으로 지목하였고, 明代의 名醫 張景岳도 “醫와 易은 근원이 같다”<sup>3)</sup>하였고, 朝鮮末 名醫 李圭峻도 “《黃帝內經》은 본래 《易經》과 더불어 서로 表裏가 된다”<sup>4)</sup>라고 하였으니 醫家들이 易의 이치를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五臟 六腑와 九竅의 위치와 수 그리고 功能 등을 易理와 연관해서 밝혀본 것이다.

2) 孫思邈, 千金要方, 서울대성문화사, 1989, p.1 “凡欲爲大醫, 必須諳素問甲乙黃帝鍼經明堂流注, …周易六壬並須精熟如此, 乃得爲大醫”

3) 張介賓, 類經,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64, “醫易同原, 同此變化也.”

4) 李圭峻, 素問大要, 大成醫學社, 1999, p.2. “黃帝之書, 本與易相表裏”

1) 易經, 小康출판사, 1995, P.219.

## II. 本論

### 1. 臟腑의 음양

#### 1. 五臟은 陰이 되고 六腑는 陽이 되는 이유

五臟과 六腑는 서로 表裏가 된다. 五臟과 六腑를 陰陽으로 말하면 《素問·金匱真言論》에서 이른바 “五臟은 陰이 되고, 六腑는 陽이 된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나눈 까닭은 陰陽의 屬性에 기준해서 나눈 것이다. 陰陽은 고정 불변한 어떤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논하고자 하는 특정 대상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혹 陰이 되고, 혹은 陽이 된다. 음양은 말하는 대상에 있어서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양면성을 나타내는 추상개념이다. 그리고 음양으로 나누어 논할 때는 음양의 속성에 기준해서 나눈다. 즉 음양의 속성은 《說文解字注》에 의하면 “山의 南쪽이 陽이요, 山의 北쪽이 陰이다. 햇살이 비치는 곳을 陽이라 한다”<sup>5)</sup> 라고 한 어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字形으로 보아도 陰字는 좌변 阝는 언덕(阜)을 뜻하며 우변은 구름이 덮고 있는 형상이요. 陽은 언덕의 위에는 태양이 있어 아래로 햇살이 비치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므로 陽은 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밝고, 따뜻하고, 動的이고, 기운으로 말하면 상승하려고 하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속성을 가진 것이요. 반면에 陰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차갑고, 靜的이고, 하강하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속성을 가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음양의 속성에 기준해서 臟腑를 음양으로 分開하면, 우선 位置上에서 본다면 五臟은 六腑에 비하여 보다 내부에 위치하므로

五臟은 陰이 되고 六腑는 陽이 된다. 또 功能上에서 보더라도 《素問·五藏別論》에서 “五臟은 精氣를 貯藏하고, 六腑는 흡수한 水穀을 變化시켜 傳輸하고…”라 하여 五臟은 藏精氣하니 靜的이고, 六腑는 傳化物하니 動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靜的인 五臟은 陰이 되고, 動的인 六腑가 陽이 되는 것이다.

#### 2. 五臟의 陰陽과 四象

《易繫辭傳》에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이라 하였듯이 四象은 陰陽이 다시 한 번 더 陰陽으로 분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는 五臟과 六腑를 陰陽으로 分開한 이치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다시 五臟 만으로 陰陽과 四象으로 분개한 經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金匱真言論 第4》:

“夫…言人身之陰陽, 則背爲陽, 腹爲陰… 背爲陽, 陽中之陽, 心也; 背爲陽, 陽中之陰, 肺也, 腹爲陰, 陰中之陰, 腎也; 腹爲陰, 陰中之陽, 肝也; 腹爲陰, 陰中之至陰, 脾也.”<sup>6)</sup>

《靈樞·九鍼十二原 第1》: “陽中之少陰, 肺也, …陽中之太陽, 心也, …陰中之少陽, 肝也, …陰中之至陰, 脾也, …陰中之太陰, 腎也.”<sup>7)</sup>

《靈樞·陰陽繫日月篇 第41》: “腰以上者爲陽, 腰以下者爲陰. 其於五臟也, 心爲陽中之太陽, 肺爲陽中之少陰, 肝爲陰中之少陽, 脾爲陰中之至陰, 腎爲

5) 許慎,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1990, p.731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0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

陰中之太陰.”

《難經：第32》：“五藏俱等，而心肺獨在膈上者，何也？然，心者血，肺者氣，血爲榮，氣爲衛，相隨上下 謂之榮衛，通行經絡，營周於外，故令心肺在膈上也。”<sup>8)</sup>

《靈樞·經脈 第10》：“肺手太陰之脈，起於中焦…脾足太陰之脈，起於大指之端…心手少陰之脈，起於心中…腎足少陰之脈，起於小指之下…肝足厥陰之脈，起於大指叢毛之際”

《素問·四氣調神大論 第2》：“春夏養陽，秋冬養陰”

《素問·六節藏象論 第9》：“心者，生之本，…通於夏氣。肺者，氣之本，…通於秋氣。腎者，主蛰封藏之本，…通於冬氣。肝者，罷極之本，…通於春氣。脾者，倉廩之本，…通於土氣(長夏).”

## 1) 五臟과 陰陽

이상 인용한 《素問·金匱真言論》，《靈樞·陰陽繫日月篇》，《難經：第32》，《靈樞·經脈篇》의 經文을 통해서 五臟과 陰陽을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素問·金匱真言論》에서 人身의 前後 즉 背·腹을 상대적으로 陰陽으로 나누어 背를 陽이라 하고 腹을 陰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剛柔로써 볼 때 背部는 剛하고 腹部는 柔하므로, 剛한 背는 陽이 되고 柔한 腹은 陰이 되는 것이요. 둘째는 子宮 內 胎兒의 형상을 볼 때, 정상적인 胎兒는 頭面과 四肢를

腹部 안쪽으로 모으고 있으며, 脊椎가 있는 背部는 바깥으로 등글게 해서 웅크리고 있다. 그러므로 外面을 싸고 있는 背는 陽이 되고, 內面에 해당되는 腹은 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靈樞·陰陽繫日月篇》에서는 腰를 중심으로, 《難經：第32》에서는 膈(橫膈膜)을 중심으로 해서 上下로 오장 음양을 구분하고 있는데, 心 肺 二臟은 上部에 있으니 陽에 배속시키고, 脾 肝 腎 三臟은 下部에 있다고 하여 陰에 배속시켰다.

《靈樞·經脈篇》에서는 五臟을 手足 經脈과 관련시켜 논함에 腰 以上 혹은 膈上에 居處하는 心과 肺는 手經으로 소속시켰고, 반면에 腰 以下 혹은 膈下에 居處하는 脾 肝 腎은 足經으로 소속시켰다.

이상은 모두 五臟의 陰陽을 인체 상하 位置上에서 본 관점이며, 나아가 五臟이 거주하는 上下 위치에 따라 手足 經脈과 연관시킨 이론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素問·四氣調神大論》，《素問·六節藏象論》의 經文은 기능상에서 五臟을 음양으로 구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즉 四氣調神大論에서는 春夏는 陽이 주도하는 계절이므로 養陽해야 한다고 하였고, 秋冬는 陰이 주도하는 계절이므로 養陰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六節藏象論에서는 春氣는 肝과 통하고, 夏氣는 心과 통하고, 秋氣는 肺와 통하고, 冬氣는 腎과 통한다고 하였다.

이상 二篇의 經文은 모두 五臟의 陰陽을 功能上 즉 氣象에서 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五臟과 四象

위에서 제시한 經文을 통해서 다시 五臟과 四象 관계를 살펴보자

《靈樞·陰陽繫日月篇》과 《難經：第32》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五臟을 우선 位置

8) 滑壽, 難經本義, 旋風出版社, 台北, 民國69年(1980년), p.38.

上에서 크게 음양으로 나눔에 腰 및 橫膈膜을 중심해서 上下로써 陰陽을 나누었고, 여기서는 다시 기능적 관점에서 다시 陰陽으로 나누어 四象(太陽, 太陰, 少陽, 少陰)과 至陰으로 배속시켰다. 즉 《素問·金匱真言論》, 《靈樞·九鍼十二原》, 《靈樞·陰陽繫日月篇》에서 上部에 거처하는 心과 肺는 陽이라 하였고, 반면에 下部에 거처하는 脾와 肝과 腎은 陰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陰陽으로 나누어, 上部의 心은 陽氣가 旺盛한 계절인 夏季에 속하니 陽中에 陽으로 陽中之太陽(太陽)이라 하였고, 肺는 陰氣가 시작하는 秋季에 속하니 陽中에 陰으로 陽中之少陰(少陰)이라 하였고, 下部에 있는 腎은 陰氣가 왕성한 冬季에 속하니 陰中에 陰으로 陰中之太陰(太陰)이라 하였고, 肝은 陽氣가 시작하는 春季에 속하니 陰中에 陽으로 陰中之少陽(少陽)이라 하였다.

단지 脾를 四象(太陽, 太陰, 少陽, 少陰)에 제외시킨 이유는 《素問·玉機真藏論》에서 “脾脈者土也, 孤藏, 以灌四傍者也.”이라 하였고, 《素問·太陰陽明論》 “帝曰: 脾不主時, 何也. 岐伯曰: 脾者土也, 治中央, 常以四時長四臟, 各十八日寄治, 不得獨主於時也”라 하여 脾는 孤藏으로 나머지 四藏에 水穀의 精氣를 灌注하며 主하는 時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장중에 脾를 제외하고 四藏으로 四象에 배속시켰다고 하겠다.

그리고 脾를 至陰이라고 한 까닭을 찾아본다면 첫째, 계절로써 볼 때 長夏에 속하여 春夏의 陽에서 秋冬의 陰으로 이르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니, 陰에 이르다는 뜻을 취하였다 볼

수 있고, 둘째는 倉廩之官으로 腐熟시켜 氣血津液을 생성 운행하여 여타 臟器와 全身 百體에 灌溉해 주니 마치 厚德으로 만물을 양육하는 坤地의 기상과 같으므로 古代 聖賢께서 至陰이라고 명명했다고 보아진다.

이상은 脾土를 제외한 四藏과 四象이론에 결부시켜 논한 것인데 이를 다시 총괄하면 心과 腎은 位置上에 있어서나 功能上에 있어서 막론하고 각각 변함없이 陽藏과 陰藏에 해당하지만, 肺와 肝은 위치, 혹은 저장물, 혹은 기능 즉 기상의 관점에 따라 혹 陽藏이 되기도 하고 혹 陰藏이 되기도 한다. 즉 位置上에서 본다면 肺는 陽에 속하고, 肝은 음에 속한다. 그리고 貯藏하는 내용물로 보면 肺는 氣를 저장하는 장기이므로 陽이 되고, 肝은 血을 저장하는 장기이므로 陰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功能上(機能上)에서 본다면 肺는 가을의 기상을 닮아 浮上하는 熱氣를 收斂하여 下降시키는 작용이 있으니 陰이 되고, 肝은 봄의 기상을 닮아 저장한 血을 전신으로 보내어 각 기관 조직의 운동을 활발케하니 陽이 된다고 하겠다.

이상 經文 내용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도표화할 수 있다. (도표1)

### 3) 五臟의 構造와 易理

앞에서 五臟을 陰陽으로 나눌 때 位置 혹은 功能에 따라 肝과 肺는 혹은 陰藏이 되기도 하고 혹은 陽藏이 되는 까닭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五臟의 체내 위치적 배치를 易理와

도표 1

신체부위	前後上下로써	분개한 陰陽	五臟과 五季	經脈	中央 土와 四象
陽·背	腰以上	膈上	肺 - 秋 心 - 夏	手	陽中之陰 - 少陰 陽中之陽 - 太陽
陰·腹	腰以下	膈下	脾 - 長夏(中央 土) 肝 - 春 腎 - 冬	足	陰中之至陰 - 至陰 陰中之陽 - 少陽 陰中之陰 - 太陰

연관시켜 논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孤臟인 脾는 論外로 하고, 각각 四時를 주하는 心肝肺腎 四臟을 體幹 胸腹腔內的 相互 위치를 비교해보면, 春·夏의 기운과 상응하는 陽藏인 肝과 心은 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秋·冬의 기운과 상응하는 陰藏인 肺와 腎은 외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心과 肝은 數에 있어서도 陽數인 奇數로 각각 하나의 臟器로 되어있으며, 반면에 肺와 腎은 陰數인 偶數로 각각 두 개의 臟器로 되어있다. 脾胃를 중심으로 보면 心은 좌측 상부에 위치하고, 肝은 脾胃의 우측에 거의 나란히 자리잡고 있어, 心과 肝은 脾胃를 중심으로 左右로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五臟의 덮개라고 불리는 肺는 胸腔內에 華蓋처럼 두개가 좌우로 펼쳐있고, 先天之氣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腎은 腹腔 뒷면에 두개가 좌우 대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肝 心 肺 腎 四臟의 數와 그 위치 배치도를 易理로써 풀어보면, 奇數는 陽에 속하고, 偶數는 陰에 속하니 인체내의 오장 가운데 春夏에 속하는 肝과 心은 각기 하나요, 秋冬에 속하는 肺와 腎은 각기 둘이나 陰藏과 陽藏이 易의 陰陽 數理와 묘하게 합치되며, 그리고 상호 배치에 있어서도 陽은 動的이고 外向性을 띄기 때문에 功能上 陽藏인 心과 肝은 胸腹腔의 내부에 거처하고, 陰은 靜의이고 內向性을 띄기 때문에 功能上 陰藏인 肺와 腎은 胸腹腔의 외부에 거처하니 이 또한 易理에서 이른바 위에 있는 外卦가 모두 陰이고 아래에 있는 內卦가 모두 陽으로 上下卦가 相交하는 地天泰卦와 같은 형상을 이루니, 여기서 또한 天地 自然 陰陽이 造化하는 妙理와 합치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脾土를 제외하고 四臟의 위치를 六爻에 비유해 본다면 卦에서 六爻는 맨 아래있는 初爻로 시작하여 二爻, 三爻, 四爻, 五爻, 上爻, 로 발전하여 다시 初爻로 되돌아와 推移하는

12辟卦(消息卦)에서 보듯이 初爻에서 一陽이 始生하는 冬至인 復卦(☱/☵)로 하여 차츰 陽이 자라서 四月이 되면 六爻가 모두 陽인 乾卦가 되었다가 五月이 되면 다시 一陰이 始生하는 夏至인 姤卦(☱/☱)로 변화하여 차츰 陰이 자라서 十月이 되면 六爻가 모두 陰인 坤卦가 되어 다시 一陽이 始生하여 復卦가 되어 環周 不休하듯이, 五臟도 가장 아래에 腎이 있고, 腎 위에 肝이 있고, 肝 위에 心이 있고, 心 위에 五臟의 華蓋인 肺가 있어 上極則下하여 다시 腎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마치 일년 草가 씨앗의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고,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었다가, 최후에 다시 땅으로 떨어져 씨앗의 뿌리가 되듯이 腎(冬) 肝(春) 心(夏) 肺(秋) 四臟도 마치 春夏秋冬 四季가 環周 不休하듯 순환 반복하는 것처럼 배치되었으니 이 또한 五臟의 位置와 六爻의 발전 순서, 12辟卦가 아래에서 위로 변하여 반복 순회하는 道理와 상호 妙하게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 3. 九竅의 構造와 易理

九竅는 眼·耳·鼻·口의 七竅와 前陰·後陰 二竅를 합하여 말한다. 九竅는 五臟의 外閥<sup>10)</sup>이니 집으로 비유한다면 五臟은 內室이고 九竅는 外門 및 外窓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1) 九竅의 構造와 易理

包識生은 그의 저서인 《醫學國粹》에서 “先天八卦, 爲九官竅之模型. 後天八卦, 爲生理上之徵象”<sup>11)</sup>이라는 題名으로 五臟과 九竅의

9 (上卦/下卦)

10 《靈樞·脈度篇》에서 “五臟常內關於上七竅”라 하여 五臟은 항상 內로부터 위로 七竅로 통하고 있다 하였고, 《素問 金匱真言論》에서 “北方黑色,入通於腎,皆竅於二陰”이라 하여 腎은 二陰에 開竅하고 있다고 하였다.

수와 위치를 易理로서 설명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眼·鼻·耳·口·前陰·後陰을 칭하여 九竅이라고 하는데 모든 竅가 잘 通利되면 생명이 잘 유지되고 만약 殘缺되거나 閉塞되면 곧 죽음에 이를 수 있다. 眼은 兩珠요, 鼻도 兩孔이요, 耳도 兩孔이다. 口는 一孔이요, 前陰도 一孔이요, 後陰도 一孔이다. 그러나 雙竅 중에 가운데 있는 鼻는 외부로는 竅가 비록 들이지만 내부로는 一竅이다. 반면에 單竅 중에 가운데 있는 前陰은 외부로는 비록 一竅이나 내부로는 雙竅이다. 즉 하나는 精竅요, 다른 하나는 尿竅이다. 人身의 九竅를 살펴보면 上下二部로 나눌 수 있으며 上部의 眼·鼻·耳는 모두 雙竅요, 下部의 口·前陰·後陰은 모두 單竅이다. 그리고 雙竅인 鼻와 單竅인 口의 境界處인 가운데 일직선 溝를 人中이라 칭하는데 이는 人身의 中央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雙竅와 單竅의 중양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上下部에 있는 竅를 易의 陰爻와 陽爻으로써 표시하면 上部는 三爻가 陰爻인 坤卦(☷)요, 下部의 三爻가 陽爻인 乾卦(☰)가 된다. 이것이 伏羲氏가 발명한 先天八卦이다. 복희씨가 근거없이 날조한 것이 아니고 人身解剖生理에 근거해서 圖案한 것이다. 이후에 文王이 계속 연구해서 後天八卦를 圖案하였는데 이는 雙竅 가운데 中竅인 鼻의 外竅를 사용하지 않고 內竅를 사용하니 上部는 坎卦(☵)가 된 것이고, 單竅 가운데 中竅인 前陰의 外竅를 사용하지 않고 內竅를 사용하니 下部는 離卦(☲)가 된 것이 이것이다. 소위 乾坤이 변하여 坎離가 된 것이니 이것이 곧 乾坤坎離 四卦가 바로 天地 造化의 圖案이다.<sup>12)</sup>

11 包識生, 國醫學粹, 旋風出版社, 民國64年(1975), p.1.

12 包識生, 國醫學粹, 台北, 旋風出版社, 民國64年(1975), p.1.

또한 생리상에서 九竅를 易理로써 풀어보면 口와 前陰 後陰은 乾卦가 되어 마땅히 健運不息해야 하니 입은 밥을 잘 먹고 대소변은 잘 通利되어야 人身이 건강한 것이요. 만약 健運하지 못하면 병이 된다. 그러므로 口와 前陰 後陰은 一刻도 멈출 수 없다. 한번 속이 비면 곧 먹어야 하고 한번 차면 곧 배설해서 一時도 쉴 수 없는 것이요. 雙竅인 眼·鼻·耳 같은 것은 健運해서는 안되며 健하면 一息도 멈추지 못하고 정신이 이어지지 못해서 반드시 병이 된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順하고 듣는 것이 順하고 호흡이 順하면 靜順柔和하여 신체가 건강해진다. 上部 雙竅의 變卦는 坎(☵)인데 坎에는 陷의 뜻이 있다. 眼·鼻·耳가 모두 陷沒하면 생리가 없게되니 세 雙竅는 합할 수 없다. 下部 單竅의 變卦는 離(☲)인데 離에는 離散의 뜻이 있다. 口가 음식을 떠나고, 생식기가 房事를 떠나고 大小便이 변소를 떠나면 창자 死亡할 징조이다.

九竅을 淸竅와 濁竅로 나누면 上部 雙竅 坤은 淸竅요, 下部 單竅 乾은 濁竅이다. 왜 그런가? 雙竅 가운데 眼은 천리를 보면 耳는 八方의 소리를 듣는데 오로지 정신이 방사하여 一毫의 물질도 용납하지 않는다. 鼻는 또한 淸竅에 속하나 淸中에 濁이라고 할 수 있다. 鼻는 향기를 맡지만 단지 몇 尺에 불과하여 그 성능이 耳目처럼 멀리 미치지 못한다. 또 鼻는 호흡氣息함에 물질이 드나들지 않지만 바람에 접촉하면 콧물이 잘 생기니 淸竅 가운데 濁竅가 된다. 반면에 前陰은 비록 濁竅에 속하지만 水分에 불과한 소변을 배설하고 元陽이 부착되어 口가 잡다한 음식을 취하고 後陰이 惡濁한 대변을 배설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前陰은 濁竅 가운데 淸竅가 된다.<sup>13)</sup>

이상은 包識生이 人身의 九竅 속에 先天八卦와 後天八卦가 존재한다고 한 이론이다.<sup>14)</sup>

13 前揭書, pp.1~2.

包識生이 先天 後天 八卦가 人身에 근거하였다는 것은 《易繫辭傳》에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仰則觀象於天，俯則觀法於地，觀鳥獸之文與地之宜，近取諸身，遠取諸物，於是始作八卦”라 한데서 “近取諸身…於是始作八卦”라는 말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易理로써 다시 부연 설명한다면 上部 세 개의 雙竅는 外竅로 보면 坤卦(☷)가 되지만 鼻의 內竅로 본다면 가운데 陰爻가 陽爻으로 변하여 外虛中實한 坎卦(☵)가 되고, 下部 세 개의 單竅는 外竅로 보면 乾卦(☰)가 되지만 前陰의 內竅로 본다면 가운데 陽爻가 陰爻로 변하여 外實中虛한 離卦(☲)가 된다. 外竅로 본 九竅는 地天泰卦가 되니 伏犧 先天八卦圖의 中交之象이 되고, 內竅로 본 九竅는 水火既濟卦가 되니 文王後天八卦의 中交之象이 된다. 天地乾坤은 水火의 體요, 水火坎離는 天地의 用이다. 乾坤坎離 四卦는 體用으로 互根이 되어 萬物의 生成에 根源이 되니 이것이 곧 先天 後天의 妙理이다. 인체의 九竅에서 造化의 근원인 乾坤坎離 四卦가 내재하고 있으니 天人이 相應하는 道理를 여기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 III. 結 論

五臟과 九竅의 인체내의 위치와 구조로써 易理와 연계하여 고찰한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五臟을 위치상에서 陰陽을 논하면 橫膈膜을 중심으로 上下로 나누었는데 즉 橫膈膜의 上部에 있는 心和 肺는 陽에 배속하고 下部에 있는 脾와 肝과 腎은 陰에 배속한다. 五臟을 四季의 氣象으로써 四象을 논하면 心은

夏에 속하니 陽中之陽으로 太陽이 되고, 肺는 秋에 속하니 陽中之陰이니 少陰이 되고, 腎은 冬에 속하니 陰中之陰이니 太陰이 되고, 肝은 春에 속하니 陰中之陽으로 少陽이 된다. 단지 脾는 中央 土로 四時에 寄旺하여 主하는 時가 없으므로 孤臟이라 칭하여, 이로써 四象에서 제외되었으나 體가 橫膈膜 이하에 존재하여 陰藏에 속하기 때문에 陰中之 至陰이라고 명명하였다고 본다.

2. 孤藏인 脾를 제외한 四臟의 數로써 陰陽을 논하면, 肝과 心은 臟器에 하나이므로 陽藏이 되고, 肺와 腎은 臟器가 두 개이므로 陰藏이 된다. 이는 四季의 氣象으로 본 五臟의 陰陽과 일치하며 易의 陰陽數理와도 합치된다. 胸腹腔內에 四臟의 배치를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陽藏인 心和 肝은 내부에 거처하고 陰藏인 肺와 腎은 外部에 거처한다. 이를 易의 卦에 비유하면 內卦가 모두 陽이고 外卦 모두 陰인 卦는 地天泰卦(☱/☷)가 되니, 五臟 構造는 天地가 交泰 造化하는 象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3. 九竅의 구조는 위에 있는 眼·鼻·耳는 모두 雙竅이고, 아래에 있는 口·前陰·後陰은 모두 單竅이다. 이를 易의 卦象에 비유한다면 上部 三竅는 坤卦(☷)가 되고 下部 三竅는 乾卦(☰)가 되어 上下卦를 합치면 地天泰卦(☱/☷)가 된다.

4. 鼻는 外部로는 雙竅이나 內로는 서로 통하여 一竅로 되어 있고, 前陰은 外部로는 單竅이나 內로는 尿竅와 精竅로 二竅로 되어있다. 鼻와 前陰의 內竅로써 卦象에 비유하면 上部의 雙竅는 坎水卦(☵)가 되고 下部는 離火卦(☲)가 되어 上下卦를 합치면 水火既濟卦(☵/☲)가 된다.

5. 그러므로 九竅를 鼻와 前陰의 外竅로써 보면 伏犧先天八卦圖의 中交之象인 地天泰卦가 존재하고, 內竅로써 보면 文王後天八卦圖의 中交之象인 水火既濟卦가 존재한다고 할 수

14 包識生, 전계서, 卷一, p.1.

있다.

요컨대 人身의 五臟 九竅의 구조에서 天地 自然 造化의 妙理가 존재하고, 나아가 《易繫辭傳》에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라 한 것이 虛言이 아니며, 人身이 小宇宙라고 하는 말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李圭峻, 素問大要, 大成醫學社, 1999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1981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1985
4. 孫思邈, 千金要方, 大星文化社, 1989
5. 張介賓, 類經, 中國中醫葯出版社, 1997
6. 滑壽, 難經本義, 旋風出版社, 台北, 民國69年(1980)
7. 許慎,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1990
8. 包識生, 國醫學粹, 台北, 旋風出版社, 民國64年(1975)
9. 易經, 小康출판사, 1995